

무역전쟁 어디로... 트럼프 '합의 희망가'에도 '아직 멀었다' 경계

트럼프 "합의한다" 연일 강조... 행정부 내엔 협상 반대론까지 기술도둑질·무역수지 난제 여전... 中 "동등한 관계로 협상하자"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운 미중 무역 전쟁을 두고 미국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무역전쟁을 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돌파구 마련의 희망을 내비치고 있으나, 실무는 책임지는 미국 행정부 내 고위관리들이 그런 어조를 애써 희석하려는 태도를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중간선거 유세지를 향해 떠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다시 한번 '희망가' (歌)를 불렀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합의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해 매우 공정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뭔가를 하는데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 뒤에 갑자기 쏟아내는 낙관론이다.

세계 경제 1, 2위인 미국과 중국은 이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협상을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한 합의를 끌어내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날부터 공식적으로 꺼내왔다.

그는 취재진이나 유권자들 앞에서 "시진핑과 중국이 합의하기를 매우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고무된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약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마친 뒤 주요 장관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약의 초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동이 다음달 1일 이뤄진다고 밝히며 만찬 행사를

를 열어 일정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따로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부 내 고위관리들은 대타협 가능성에 대한 관측을 경계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미국 CNBC방송 인터뷰에서 합의의 압박에 선을 그었다.

커들로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취합해 둔 것들을 보통 때처럼 통상적으로 훑어 보고 있으며 일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큰 움직임이 전혀 없고, 거대한 것도 아예 없다"며 "우리가 합의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역전쟁의 또 다른 실무 책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로 첫손에 꼽히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과 합의를 추진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은 단시간

에 쉽게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그간 일반적 관측이었다.

무역전쟁을 촉발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논란,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 중국의 통상 불공정관행 등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미국의 요구가 기술강국을 토대로 한 중국의 부흥 비전을 포기하라는 협박일 수밖에 없고, 미국에는 중국의 요구 거부가 패권을 중국에 넘기라는 도전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기술탈취 방지, 고율관세 부과, 환율조작 방지 등을 위한 공세를 통해 중국을 계속 몰아붙여 왔고 공세를 멈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술굴기의 중심에 있는 푸젠화반도체를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한 뒤 지적재산권 도둑질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해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힌 데 이어 2천 67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 고율관세까지 경고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우산동 건강마을 전국에 알려 건강도시협의회서 주제발표, "시민 주도 건강 프로그램 확산할 터"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1-2일 대전 유성구에서 열리는 '제12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KHCP) 정기총회'에 참가해 '미래를 위한 행복한 날갯짓, 우산동 건강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KHCP는 시민 간 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자치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체. 이번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회원 도시들은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정기총회 첫날 김 청장은, 주민이 2016년부터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양성된 32명의 건강지도사들이 병원·대학·복지관 등과 함께 마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광산구 우산동 하남주공 1단지 건강마을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하남건강위원회 활동처럼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건강 프로그램이 구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산구를 주 무대로 열리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홍보했다. /광산·고훈석 기자 ghs@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전남 행복시대 연다

전라남도는 3일까지 이틀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재할시설 종사자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기념식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고용 보호 활성화에 기여한 종사자 12명에게 도지사 표창 등을 실시해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높여줬다.

이어진 종사자 직무향상교육에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 및 장애영역별 특성을 소개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구성돼 직업재활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BIXPO 2018' 폐회 한국전력이 개최한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18'(BIXPO 2018)가 지난 2일 빅스포 어워드를 끝으로 폐막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빅스포 어워드에서 폐막행사가 펼쳐지는 모습. /연합뉴스

기사제보 227-0000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강진, 고흥, 함평, 해남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062)227-0084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